

저명한 범죄학 전문가 최을교수는 P시에 있는 경찰청 특수수사대 분실에서 강소룡경감의 설명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 최교수는 경찰청의 긴급지원요청을 받고 그날 새벽 집을 나와 첫 비행기로 P시에 내려왔다. 그는 벌써 석잔제의 커피를 들고 있었다.

『이 사건은 매우 복잡하게 꼬여 있습니다. 산업스파이 사건이라고는 하지만 단순한 화이트컬러 범죄는 아닙니다. 이미 피살자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혐의자는 잡았지만 중요한 증거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강경감은 의자에 등을 기대면서 말을 이었다.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이 사건배경에는 KD전자사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이 회사는 이곳 전자공업단지 남쪽에 사무실을 차리고 벌써 2년전부터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회사는 산업비밀을 사고 파는 것 같습니다. 중개인 역할을 하면서 민감한 전자설계를 입수하여 가장 높은 값을 부르는 외국기업의 앞잡이들에게 팔아넘기는 것입니다. 요즘 전자분야에서는 새로 개발된 설계는 수억대를 호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사는 어디까지 진전됐나요?』 최교수는 물었다.

『네! 몇주일전 저희는 이 회사를 감시하기로 하고 전화를 도청하기 시작했습니다. 암호전화대화를 바탕으로 한 상황증거는 잡았으나 훔친 정보나 또는 돈거래와 같이 법정에서 승산이 있는 증거는 하나도 얻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닷새전에 돌파구가 열렸습니다.』

강경감의 설명에 따르면 KD전자사장 김탁씨와 컴퓨터칩 메이커인 남해반도체산업회사의 종업원인 조박씨간의 전화대화를 도청하면서 실마리를 풀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수사대는 비밀리에 남해반도체사의 보안책임자와 접촉을 하여 가짜 연구문서를 미끼로 꾸며 누군가가 훔쳐가기를 기다리기로 했다. 강경감은 말을 이었다.

『그런데 조박씨가 걸려든 것입니다. 이 문서들을 KD전자에 팔 수 있는 진짜 설계도로 생각한 모양입니다.』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었어요.』

사복수사요원들이 조박씨의 뒤를 쫓으면서 그가 가짜서류로 생각되는 것을 들고 KD전자사 건물로 들어가는 것을 확인했다. 이들은 조박씨가 다시 KD전자사 건물을 나온 뒤에도 감시를 계속했으나 그를 체포하지는 않았다. 이들은 김탁사장이 보낼 연락원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을 기울였다.

이윽고 KD전자사 건물에서는 김탁사장의 설명과 같은 인상착의를 한 연

함께 푸는 미스터리<Ⅲ>

산업스파이 살인사건

한편 KD전자사의 김탁사장이 이 훔친 서류를 사려고 하는 사람에게 전화를 거는 것을 도청하여 P공항구내에 있는 레스토랑 「제비」에서 서류의 거래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김탁사장은 바이어에게 서류를 전달할 연락원의 인상착의를 알려주었다. 매대는 바로 다음날로 정해졌다.

『최교수님, 그 날짜가 바로 어제였습니다.』 강경감은 말을 이었다.

『저는 일이 매우 간단하게 해결될 줄로 생각하였습니다. 우리는 공항에 감시팀을 배치했습니다. 이제 남은 일은 연락원과 바이어가 거래를 마쳤을 때 두사람을 체포하는 것 뿐이라고 생각

락원이 갈색 가방을 들고 나왔다. 수사요원들은 그를 미행하면서 공항에 도착했다. 그런데 일단 터미널로 들어선 이 연락원은 어찌된 영문인지 예정대로 레스토랑 「제비」로 가지 않고 곧장 물품보관용 로커로 가서 가방을 넣은 뒤 공중전화박스 쪽으로 향했다. 수사요원들이 먼 발치에서 감시하는 가운데 그는 잠깐 전화를 건 뒤 총총 걸음으로 물품보관용 로커로 돌아와서 가방을 되찾아갔다.

강경감은 말을 이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공항청사 스피커에서는 폭탄위협이 발생했으니 곧 대피하라는 다급한 음성이 흘러나

왔습니다. 사람들은 사방으로 뛰기 시작했지요. 이런 복세통에 수사요원들은 그만 연락원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결국 속임수라고 드러났지만 이 폭

한편 화장실의 한 칸막이속에서 철사로 교살된 연락원의 시체도 발견했다. 그의 무릎위에 놓인 가방은 열려 있었고 그속에는 지갑과 동전, 열쇠, 빗, 담배곽, 그리고 몇몇 개인용 물품이

서류는 찾아낼 수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연행한 사람은 아직도 잡아두고 있나요?』 최교수가 물었다.

강경감은 고개를 끄덕이면서 말했다. 『그러나 오랫동안 잡아둘 수는 없습니다. 서류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충분한 증거가 없기 때문입니다. 또 KD전자사 사람들은 거래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벌써 눈치채고 우리가 조치를 취하기 전에 빠져나갈 대책을 서두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빨리 서류를 찾아내지 못하면 시간은 우리에게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최교수는 한참 생각에 잠겼다. 『연락원의 소지품을 모두 보관하고 있나요』 라고 물었다. 강경감은 머리를 끄덕인 뒤 방에서 나갔다가 곧 플라스틱 주머니 하나를 들고 돌아와서 내용물을 책상위에 쏟았다. 거기에는 여러 장의 영수증을 넣은 지갑, 운전면허증, 신용카드, 빗, 동전 몇개, 열쇠 묶음, 손수건 그리고 담배 한곽이 널려 있었다.

최교수는 하나하나의 품목을 들고 한동안 생각에 잠겼다.

한참 뒤 최교수는 강경감을 쳐다보면서 말했다.

『자! 어서 공항으로 함께 기뵙시다. 없어진 서류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소.』

최울교수는 없어진 서류의 미스터리를 어떻게 풀었을까? <春堂人>

☞미스터리의 해답은 89쪽



최교수 “어서 공항으로 갑시다.” 없어진 서류 어떻게 찾았을까?

탄위협에도 아랑곳없이 수사요원들은 즉각 행동을 개시하여 터미널속을 이잡듯 살살이 뒤지면서 연락원을 찾아나섰다. 그런데 남자화장실에서 전에 보지못했던 남자 한사람이 세면대에서 침착하게 손을 씻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수사요원들은 이 남자를 연행하는

들어 있을 뿐 서류같은 것은 없었다.

『혐의자는 그 연락원에 관해서는 전혀 아는 것이 없다고 잡아떼는 겁니다.』 강경감의 말은 다음과 같이 이어졌다.

『그런데 남자화장실과 그 이웃을 면밀하게 뒤졌으나 가방속에 들어있을